

# 여순사건 추념식에 대통령 참석해달라

전남 동부권 6개 시·군 단체장  
유족회장 공동명의 건의문  
대통령실·국회의장실 전달  
19일 광양시민광장서 열려



전남 동부 6개시군 자치단체장과 유족회장이 공동명의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추념 행사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참석이 공식 요청됐다. 광양시는 전남 동부 6개시군 자치단체장과 유족회장 공동명의로 제74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 때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건의문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74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 추념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합동 추념식은 지난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진실 규명을 물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해보다 크다.

이에 따라 광양, 여수, 순천, 고흥, 구례, 보성 6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여순사건유족회장은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이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가의 지원 확대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

동명의 건의문을 마련해 지난 9월 30일 대통령실(국민통합비서관실), 국회(국회의장실) 등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건의문은 국가 공권력에 피해를 본 무고한 여순사건 희생자의 한을 달래고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은 유족 개개인 의 몫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므로 합동 추념식에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여야당 대표,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간곡한 기대도 담겼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7월 20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9월 현재 120건의 진상규명 신고와 3083건의 희생자 유족신고가 접수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희생자 신고접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단 한 건의 신고도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달 30일 열린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순천시 제공>

## 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순천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녹색성장에 나선다.

순천시는 최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40%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세부 이행계획 마련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순천시는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순천형 탄소중

립 사업발굴 및 교육·홍보, 이행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 등을 계획 중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착수보고회에서 제안된 관련 부서 의견을 용역 추진에 반영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설정 및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기본계획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이 대두되고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순천시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9~10일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 행사

제13회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가 9~10일 이틀간 여수시 소라면 해남이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수 여자만은 여자도를 중심으로 순천·별교·고흥군으로 둘러싸인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갯벌 내해이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자만의 환상적인 노을과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관람객이 직접 물고기를 잡아보는 개매기 체험과 맨손 고기잡기, 대나무 망둥어 낚시, 해마다 인기가 높은 바지락 캐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척마을과 북개도 사이 바닷길 500m를 걷는 북개도 가족사랑길과 보물찾기 체험은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로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풍어제와 당산제, 흥겨운 축하공연과 버스킹공연, 노을 가요제, 학생들이 펼치는 댄스경연대회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이 외에도 페이스페인팅과 물로켓 만들기 등 어



린이 체험관과 바다음식 체험관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여수 묘도동의 태극기 사랑 묘도 분교 태극기 체험학습

여수시 묘도동은 지난달 28일 삼암초등학교 묘도 분교에서 '제1회 여수 묘도동 태극기 사랑 어린이 체험학습'을 개최했다.

묘도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묘도 분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태극기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 그리기 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퀴즈를 통해 태극기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태극기 만들기 시간에는 태극기 문양의 바람개비를 직접 만들어 보고 소망 메시지를 태극 문양에 직접 글로 적어 만든 대형 '소망 태극기'도 제작했다.

정용길 묘도동장은 "10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태극기를 바로 알리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여수시 묘도동(동장 정용길)은 최근 삼암초등학교 묘도 분교에서 '제1회 여수 묘도동 태극기 사랑 어린이 체험학습'을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이 태극기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묘도동은 과거 모든 주민이 태극기를 게양할 정

도로 남다른 태극기 사랑을 실천해왔으며 최근 산단과 지역 단체의 지원을 통해 각 가정에 전용 깃대를 설치하고 '365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해오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군, 별교갯벌 복원 등 현안 국비 확보 총력

보성군이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의결 시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나섰다.

2023년 국비 확보 사업은 전라남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비 사업에 산 반영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은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별교갯벌 복원사업(70억원) ▲용산 장수 농어촌 하수도 정비

(46억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 현황, 필요성을 구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국비 확보 목표사업은 8개 사업 3051억원으로 ▲환경분야 보성관로정비 2단계(105억원), 회천지구 관로정비(123억원), 용산-장수 농어촌하수도 정비(46억원), 군농-연천 농어촌 하수도정비(52억원), 청암-비봉 농어촌 마을 하수

도 정비(55억원) 등이다.

해양수산분야는 ▲별교 갯벌 복원(70억원) ▲해양갯벌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 증액(100억원) ▲여자만 국립갯벌 해양정원 조성(2500억원)이다.

전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임성-보성간 철도 개선사업(354억원)은 2023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액을 요구하고,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1084억원)이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구례군 '생활목공DIY-5기' 과정 수강생 모집

구례군이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 '생활목공DIY-5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생활목공 양성 교육은 각 요일별 6명씩 총 12명 모집하며, 선착순 지원받는다. 교육 신청은 구례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하다.

생활목공DIY 교육은 목재의 우수한 장점과 활

용성이 알려지면서 목공교육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목재 가공 기초이론, 목공장비 쓰임과 사용법, 설계도면 작성, 가구 채색의 방법 등 목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10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만으로도 나눠 각각 9회 36시간으로 구례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진행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